

김대식 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이름: 하 꾸억 비엣

학번: 202239630

김대식 교수님의 강연은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통찰력 있게 보여준 시간이었다. 교수님은 “AI 를 단순히 검색 도구로만 쓰지 말고, 직접 대화해 보라”고 말씀하시며, AI 활용 능력이 곧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하셨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이 강연을 통해 AI 시대의 변화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법 자체의 혁명임을 깊이 느꼈다.

강연 내용 요약:

1. 인공지능의 역사와 한계

AI 의 개념은 1956 년에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인간이 규칙을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rule-based AI)에 머물러 있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털이 있고, 다리가 네 개다”와 같은 규칙을 넣었지만, 컴퓨터는 여전히 고양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2. 2012 년의 전환점 — 학습 기반 인공지능의 탄생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AI 를 제안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AI 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며, 그 결과 AI 는 진정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3. 현재의 세 가지 큰 변화

① 단일 모달(uni-modal) → 다중 모달(multi-modal):

AI 가 이제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다.

② 생성형 언어모델(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등장:

AI 는 인간이 가르친 문법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언어의 규칙을 스스로 학습한다.

③ 사고하는 인공지능(reasoning model)로의 진화:

‘Chain of Thought(사고의 사슬)’ 기술을 통해,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4. 사회적 영향

AI 는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한국처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한 나라에서는 AI 가 ‘심리적 대화상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변화는 인간관계, 정치, 그리고 인간성의 의미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셨다.

전공자로서의 느낀 점

AI의 발전 과정을 “규칙 기반에서 학습 기반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함을 일일이 규칙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인간이 직접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딥러닝(Deep Learning)과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술이 탄생했다. 또한 reasoning model의 발전은 프로그래머로서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다. 과거의 언어모델은 겉보기에는 논리적인 문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류가 많았고(hallucination), 이제는 Chain of Thought를 통해 추론력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 기술은 향후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코드 분석 등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회적 · 윤리적 고찰

AI가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언젠가 대화할 수 있고, 평가받지 않으며, 돈이 들지 않는 “완벽한 대화 상대”이 편리함은 결국 인간의 관계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AI 의존도 증가는 전문성 약화의 위험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2주 동안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10분 만에 디버깅을 끝냈지만, 이제는 AI가 10분 만에 코드를 만들어 주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데 한 달이 걸리기도 한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새로운 딜레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AI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며, 기술적 윤리의식 또한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실천 계획

*이번 주 안에 세 가지 AI 도구(대화형 LLM, 멀티모달 생성기, 추론형 AI)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트랜스포머(Transformer)와 Chain of Thought의 구조를 공부하고, 직접 미니 프로젝트(전공 과목을 위한 챗봇 등)를 만들어볼 계획이다.

*AI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여, 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김대식 교수님의 강연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 강의가 아니라 AI시대를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였다. AI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도구이다. 하지만 그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기술의 격차가 곧 인생의 격차가 될 것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저는 “AI를 배우는 것”을 넘어, “AI와 함께 사고하고 성장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심지어 이 감상문 역시 저는 모국어(베트남어)로 작성한 뒤 AI를 이용해 한국어로 번역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제 학습과 삶 속에 함께 존재하는 동반자이다.